뻠뻡뻢뻦- 경기문화재단 공동기획

“한국 전통Rap(?) 한가락 들어보소”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 <27>

제31호 경기소리(휘몰이잡가) 보유자

이 성 희 씨

한 잔(盞) 부어라 두잔 부어라 가득 수북 철철 부어라/ 면포 잔포 유리왜(琉璃矮)방에 대안주(大按酒) 곁들여 초당문갑(草堂文匣) 책상(冊床) 위에 얹었더니/ 술 한잘 먹는 유영(劉怜)이 태백(太白)이 내려와 반(半)이나 넘어 다 따라 먹고 잔(盞) 골렸나 보다/ 기왕(旣往)에 할 일 없고 할 수 없으니 남은 달 남은 술 정(情)든 임 갖추어 가지고 부직군 작다구나/ 생찌그랭이 다 따버리고 완월장취(翫月長醉)

- 경기소리 휘몰이잡가 ‘ 한잔 부어라 ’

언뜻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이 말들은 우리의 소리다. 500여년의 세월이나 차이나는, 죽림칠현 중 하나로 꼽혔던 유영과 신선같은 삶을 산 이태백을 한 공간에 묶으며 유유자적한 삶의 풍류를 읊고 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1호 경기소리 휘몰이잡가 보유자 이성희씨(63)의 입에서 나오는 걸죽한 이 소리는 좀 생소한 듯 하지만 빠르게 전개되는 가사가 자세히 들으면 요즘의 노래와 비슷하다. 바로 랩(Rap)의 형식을 띤 것.

장형시조서 비롯…1800년대 경기지역서 불려

現 10가지 전해…빠른 장단·경쾌한 리듬 특색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서양 음악중 ‘랩’이라고 있죠? 휘몰이잡가를 쉽게 생각하면 그거에요. 한국형 랩이죠. 하지만 서양의 그것이 직설적인 반면 우리의 것은 해학과 풍자, 과장, 익살, 의인법 등이 축약돼 있어 소리의 깊이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잡가는 크게 분류해 두가지로 나뉜다. 긴잡가라 일컬어지는 12잡가(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 집잡가, 형장가, 출인가, 선유가, 평양가, 달거리, 십장가, 방물가 등)와 휘몰이잡가가 그것이다.

경기소리 휘몰이잡가는 조선조 후기인 1800년대부터 경기도 지역에서 불리워 온 소리로 옛 장형시조 혹은 상형시조에서 시작됐다 알려져 있다.

휘몰이잡가의 작사나 작곡의 발원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학계에서는 기생과 삼패, 사계측 소리꾼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계측 소리꾼이 잘 불렀으며 사계측인들이 주로 활동하던 곳을 당시의 고양군 용강면 공덕리(현재의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공덕동 일대)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휘몰이잡가는 총 10가지로 만학천봉과 곰보타령, 병정타령, 기생타령, 육칠월, 생매잡가, 바위타령, 맹꽁이타령, 한잔 부어라, 비단타령 등이며 소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뛰어난 소리와 빠른 장단에 휘몰아 가는 경쾌한 리듬에 맞춰 부르는 특징을 갖는다.

중학시절 박은돌씨 소리에 반해 무작정 배워

‘경서도 소리의 달인’ 故 이창배 선생에 사사

이씨가 처음 소리를 접한 시기는 중학교를 다닐 무렵으로 동네에 박은돌이라는 선소리꾼을 만나면서 부터다. 농요라는 것만 알고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는 몰랐다는 이씨. 오다 가다 들려오는 소리에 매료돼 무작정 배웠다.

“본격적으로 소리를 시작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 소리가 ‘상고타령’이란걸 알았습니다. 그냥 흥얼거리는게 좋아서 불렀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의 유일한 낙(樂)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독학으로 소리 공부를 해야 했다. 방과 후 집에다가는 책가방을 놓고 소리책 한 권을 겨드랑 사이에 낀 채 뒷산을 올랐다. 백과사전처럼 두꺼운 소리책 한 권이 학창시절 유일한 소리 친구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씨는 소리를 잠시 접어야 했다. 당시만 해도 먹고 살기 바빴던 터라 ‘밥벌이’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얼마 후 군에 입대하고 제대 후에는 부친이 작고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이씨가 하려는 사업은 고배를 맛봐야 했다.

“‘이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가진 게 없으니 마음은 편해지더라구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이럴바엔 하고 싶은 거라도 하고 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故 이창배 선생이 운영하던 ‘한국고전성악연구소’다. 경서도 소리의 달인이라 불리는 이 선생으로부터 이씨는 착실히 수업을 해 나갔다. 낮에는 품을 팔아 일을 했고 아침과 저녁으로 소리를 배웠다. 1969년부터 80년대 초까지 이 선생에게 소리를 배운 이씨. 배우기도 어렵고 배우려 하는 소리꾼도 별반 없었던 휘몰이잡가는 70년대 초 부터 차근차근 익혀 나갔다.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휘몰이잡가는 가곡과 가사, 시조, 그리고 긴잡가 등 이 모든 소리를 다하고 나서 하는, 소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라고….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저 또한 그때만큼 최선을 다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하지 않았고 조금조금씩 한 소절 한 소절 제 것으로 만든 후 진도를 나갔습니다.”

고양서 ‘경기휘몰이잡가 보존회’ 운영

‘사랑의 예술무대’ 공연…우리소리 전파

이 선생의 이야기를 하며 이씨는 한층 더 열을 올린다. 그만큼 일생일대의 은인이기도 하거니와 소리에 관한 경애심이 모두 그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했습니다. 한 번은 여느때처럼 공원에서 새벽 소리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피곤하셨는지 꾸벅꾸벅 조시더라구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 장구와 채를 잡고 연습하는데 제가 틀린 부분은 언제 들으셨는지 그때 그때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소리의 득음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은 이씨는 99년에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후 휘몰이잡가의 보급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청 부근에 ‘경기휘몰이잡가보존회’(덕양구 주교동)를 운영하며 몇 년전부터는 소외계층을 위한 무대도 마련하고 있다. ‘함께 나누는 사랑의 예술무대’가 그것으로 양로원과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을 돌며 우리의 소리를 전파한다. 올해는 4월과 7월께 10여차례가 예정돼 있다.

“앞으로 휘몰이잡가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잡가’ 자체가 과거 민중의 소리, 대중음악이었던 걸 생각하면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죠. 서양 문물의 유입이 우리네 삶의 방식과 인식 등을 바꿔 놓았는데 뿌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음반 제작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에 휘몰이잡가를 알리는 방안을 구상중이죠. 이는 남은 제 일생의 업(業)이라 생각합니다.”

생계의 우여곡절 속에도 30여년이 넘는 세월을 한결 같이 함께한 아내 최순자씨(56)를 생각하면 미안할 뿐이라는 이씨. 소리에 정진하느라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 아닌가 하지만 3남매의 자녀와 아내 최씨가 있어 행복하다 전하는 그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이연섭·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

닾공연후 경기휘몰이잡가보존회 회원들과 기념사진 한 컷

닾지난달 7일 경기도박물관에서 마련한 ‘해설이 있는 경기소리’ 무대에서 앵콜곡으로 ‘상고타령’을 부른 이성희씨